

## 존경받는 벤처기업이 되자

— 다날의 사회공헌 활동 —

2006년 3월의 월요일 지구촌교회.

“선생님~ 좀 놀고 나서 공부하면 안돼요?”

“인호야~ 그러지 말고, 숙제 마저하고 놀자. 응~?”

매주 월요일 오후 봉천동에 있는 지구촌순복음교회에 있는 다날 행복한휴스쿨 1호점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놀려는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가르치려는 자원봉사 선생님들 간 살랑이가 벌어진다. 하지만 1시간의 공부시간이 끝나고 간식시간과 놀이시간이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다날과 기아대책, 지구촌순복음교회가 공동 운영하는 다날 행복한휴스쿨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공부도 돌봐주고 간식과 저녁식사도 챙겨주는 지역아동센터다. 다날은 휴스쿨 운영비용 일체를 지원하며 매주 월요일 오후에는 임직원 3~4명이 한조가 되어 아이들의 숙제와 공부를 돌봐주는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

다날은 지난 2월 다날 행복한휴스쿨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회공헌사업에 나섰다. 행복한휴스쿨 1호점 외에도 다날은 전 직원들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거기에 전 직원이 후원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매칭그랜트 형태로 기금을 마련, 내년에는 다날 행복한휴스쿨 2호점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다날의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목적은 단순한 이익창출이 아니라 창출된 이익을 기업 구성원과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 다날 박성찬 대표의 경영철학에서 비롯됐다.

박대표는 항상 “존경받는 기업만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며 “창출된 이익의 일정부분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나눔경영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다날은 1997년 설립 이후 여러 복지기관들과 함께 불우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해왔다. 기아대책과 '사랑의 111운동'을 펼쳤으며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 나눔장터 캠페인도 진행했다. 또한 한국복지재단이 주관하는 빈곤아동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모금행사 '탁탁페스티벌'을 후원하기도 했다.

2003년부터는 아예 경조사금 및 후원금 결제 대행 사이트인 부주닷컴(www.bujoo.com)을 오픈하고 한국복지재단, 사랑의열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소이암재단,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에 휴대폰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결제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기관들에 다시 기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날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